



\*에로티시즘

## \*에로티시즘Eroticism

-남녀간의 사랑이나 관능적 사랑의 이미지를 의식적, 무의식적으로 암시하는 경향

-성적인 이미지를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환기하는 일을 의미

-어원: 에로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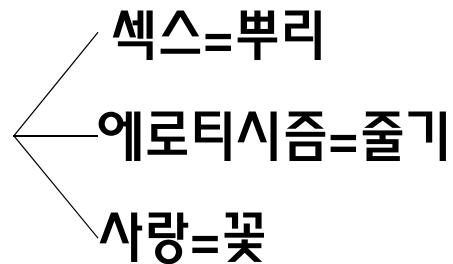
-생물로서의 인간의 육체적 욕망이나 생식행위보다는 본질적으로 심리적인 연유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모든 문화적 전통, 신화, 풍속, 종교, 예술 속에 깊이 뿌리 내림

## 1. 최초의 에로티시즘

-남성과 여성은 성교를 통해 고귀한 감정을 가짐: 사랑



인간 삶의 변화:



남성: 사랑하는 여성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릴 수도 있는 이타적인 감정=섹스, 에로티시즘, 사랑

⇒최초의 섹스=인간의 정신을 순화하고 청결하게 만드는 것

\*에로티시즘의 타락의 길=문명의 발달: 불로 칼, 창, 화살로 전쟁, 지배자, 피지배자

2. 선사시대: 수간, 여성을 성적 노리개

3. 그리스, 로마시대

-지배와 피지배 계급 구분 명확

-포르노그래피의 세계만 존재

-섹스와 에로티시즘 타락

4. 중세

-에로티시즘의 타락기

-인류 최초의 에로티시즘이 원천적 봉쇄 당함: 난잡한 성, 음담패설

5. 르네상스 시대

-인간성 부활: 인간의 육체 찬미 대상, 섹스와 에로티시즘에 대한 담론

-그림, 조각: 풍만한 육체, 남녀 성교 장면=에로티시즘의 빛 발산

## 6. 17세기 색의 시대

-에로티시즘은 허무한 쾌락과 포르노그래피 차원으로 퇴락

-난잡한 성교 판치는 세상

-유럽 왕족과 귀족들의 변태적인 성 행태 난무

## 7. 18, 19세기 부르주아 시대

-부르주아들이 겉으로 예절과 정숙함과 강조// 유곽과 뒷골목에서 17세기의 왕족과 귀족들의 성 행태 답습

## 8. 20세기 이 후

-순수 에로티시즘 실종과 복원 주장

-D.H. 로렌스 주장: ‘차탈레 부인의 사랑’ 잃어버린 에로티시즘을 되찾는 것이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

-순수 에로티시즘을 방해하는 것:

①섹스를 순전히 육체적 쾌락의 도구로 보는 시각

②섹스와 에로티시즘을 정신과 의지로 통제하려는 시도



성을 도구화하려는 속성, 인간을 극도의 쾌락 or 무미건조한 일상으로 내몰아 분열과 파괴로 이끔

-순수 에로티시즘의 전제 조건: 남성과 여성이 상대방의 갈망과 상처를 느끼고 존중하는 능력

-순수 에로티시즘의 경지: 남성과 여성이 섹스를 통해 상대방의 갈망과 욕구에 융화하면서 동시에 온전한 자신을 확립하는 상태

\* ‘어린 왕자’



Antoine de  
Saint-Exupéry

29 June 1900 – 31 July  
1944



\*사랑: 어린 왕자, 꽃, 여우





## 1. 꽃과 어린왕자

- ‘그 꽃의 신비로운 화장은 꽤 여러 날 이걸 뒀어요’
- ‘그 꽃은 아주 꼼꼼하게 화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품을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’

“아! 전 이제 겨우 잠에서 깨어났답니다. 미안해요...아직 머릿도 엉망이고...”

“당신은 정말 아름답군요”

“그렇죠? 그리고 전 해님과 함께 태어났어요”

‘어린왕자는 그 꽃이 그다지 겸손하지 않다는 걸 알아차렸어요. 하지만 그 꽃은 정말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! ’



- “아침식사 시간이 된 것 같은데  
내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군요  
...”

- ‘어린왕자는 어쩔 줄 몰라하며  
시원한 물이 담긴 물뿌리개를 찾  
아다 꽃의 시중을 들었어요’



-이렇게 꽃은 태어나자마자 약간은 심술궂은 허영심으로 어린 왕자를 괴롭혔어요. 어느 날은 자기의 몸에 달린 네 개의 가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어린 왕자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

“호랑이들이 발톱을 세우고 덤벼들지도 몰라요!” 어린 왕자가 반박했어요

“내 별에는 호랑이가 없어요. 그리고 호랑이들은 풀 따위는 먹지도 않아요.”

“전 풀이 아니에요”

“미안해요...”

“호랑이는 무섭지 않지만 바람은 무서워요. 바람막이를 갖고 있나요?”

‘바람을 무서워하다니...식물로서는 참 안된 일이야. 이 꽃은 정말 까다롭구나...’



\*장미=모두가 사랑.  
세상의 악으로 부터  
보호해야 될 순수,  
아름다움의 표상

- “저녁엔 유리덮개를 씌워줘요. 당신 별은 너무 추워요. 설비  
도 엉망이고요. 제가 떠나온 곳은...”

그러나 꽃은 거기서 말을 그만 두었어요. 꽃은 씨의 모습으로 왔  
던 거예요. 그러니 다른 세계에 대해서 결코 알 리가 없었지요.  
그런 뻔한 거짓말을 꾸며대다가 들킨 게 부끄러워 꽃은 어린 왕  
자에게 잘못을 뒤집어씌우려고 두세 번 기침을 했어요.

“바람막이는요?”

“막 찾으려던 참인데 당신이 말을 걸었잔아요...”

그러자 꽃은 억지 기침을 하여 어찌됐건 어린 왕자를 후회하도록  
만들었어요.

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사랑에서 우러나온 선의를 가지고 있으  
면서도 그 꽃을 의심하게 되었어요. 대수롭지 않은 말을 심각하  
게 받아들였어요. 그것은 그를 아주 불행하게 했어요.



어느 날 그는 내게 속마음을 털어 뱉어요.

“꽃의 말을 듣지 말아야 했어요. 절대로 꽃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. 그냥 바라보고 향기나 맡아야 해요. 내 꽃은 내 별을 향기롭게 해주었는데도 나는 그걸 즐길 줄 몰랐던 거예요. 그 발톱 이야 기만해도 그래요. 내가 그렇게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가엾게 여겼어야 했는데...”

어린 왕자는 계속해서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했어요

“그때 난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.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했어요. 그 꽃은 나를 향기롭게 해주고 내 마음을 맑게 해주었어요. 거기서 도망쳐 나오는 것이 아니었어요! 그 가련한 속임수 뒤에 애정이 숨어 있는 걸 알아차려야 했어요. 꽃들은 아주 모순덩어리예요! 하지만 난 너무 어려서 꽃을 사랑할 줄 몰랐던 거예요”

## 2. 여우와 어린 왕자: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?

### -인간관계의 성립

“나랑 같이 놀자. 난 너무나 슬퍼...”

“난 너랑 같이 놀 수 없어.” ”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거든”

“길들여진다는 게 뭐지?”

“그 말은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지”

“관계를 맺는다고?”



“물론이지. 내겐 넌 아직 수십 만의 아이들과 같은 어린아이일 뿐이야. 난 네가 필요하지 않고 너 역시 내가 필요하지 않아. 너에게는 내가 수십 만의 여우들과 같은 여우에 불과하니까.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될거야. 나는 너한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거고...”

“무슨 말인지 알겠어. 내겐 꽃이 하나 있는데...그 꽃이 날 길들인 것 같아...”

-관계에 대한 생텍쥐페리의 성찰: 어린 왕자가 버려두고 온 꽃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 별로 돌아가서 꽃을 돌보게 될거라는 생각. 책임지는 관계, 익숙해지고 길들여진 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소중히 해야 한다는 것.

“저길 봐 밀밭이 보이니? 나는 빵을 먹지 않아. 밀은 나한테 쓸모가 없어. 밀밭을 보아도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아. 그래서 슬퍼. 그러나 네 머리칼은 금빛이야. 그래서 네가 날 길들인다면 정말 신날 거야! 밀도 금빛이기 때문에 밀은 너를 기억하게 해 줄 거야. 그래서 밀밭을 스치는 바람소리까지 사랑하게 될 거고...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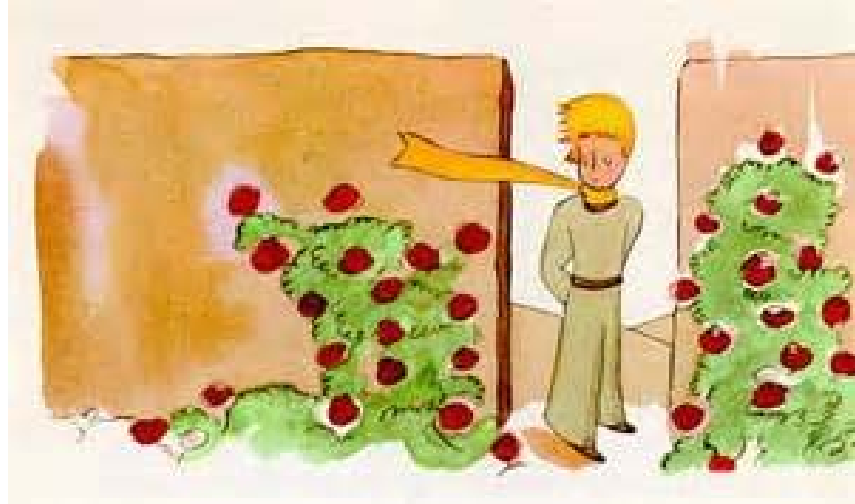
“널 길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니?”

“아주 참을성이 많아야 돼. 우선 넌 나와 좀 떨어져서 그렇게 풀밭에 앉아 있는 거야. 난 결눈질로 널 볼 거야. 넌 아무 말도 하지마. 말은 오해의 씨앗이거든. 그러면서 날마다 너는 조금씩 더 가까이 앉으면 돼...”

“같은 시간에 오는 게 더 좋을 거야. 가령 오후 네 시에 네가 온다면 세 시 부터 난 행복해질 거야. 네 시가 되면 이미 나는 불안해지고 안절부절못하게 될 거야. 난 행복의 대가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. 하지만 네가 아무 때나 온다면 몇 시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지 난 알 수가 없을 거야...”



“장미들을 보러 가렴. 너는 네 꽃  
이 이 세상에 단 하나란 걸 알게  
될거야. 그리고 나에게 이별의 인  
사를 하러 와. 그럼 비밀 하나를  
선물로 줄게”



“너희들은 내 장미와 조금도 닮은 데가 없어. 너희들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. 아무도 길들여지지 않았고 너희  
들도 누구 하나 길들이지 않았어. 내 여우가 꼭 너희들 같았지. 내 여우는 수 많은 여우들과 같은 여우 한 마  
리에 지나지 않았지. 하지만 난 여우를 친구로 삼았고 그 여우는 이젠 이 세상에서 단 하나 밖에 없는 여우가  
됐어. 너희들은 아름다워. 하지만 너희들은 비어있어. 아무도 너희들을 위해 죽을 수는 없을 테니까. 물론 나의  
꽃인 내 장미도 멋모르는 행인은 너희와 비슷하다고 생각할거야. **하지만 내겐 그 꽃 하나만으로도 너희  
들 전부보다 더 소중한. 내가 물을 준 것은 그 꽃이기 때문이야. 내가 바람막이로 바람을 막  
아준 건 그 꽃이기 때문이야. 내가 벌레를 잡아준 건 그 꽃이기 때문이야. 내가 불평을 들어  
주고 허풍을 들어주고 때로는 심지어 침묵까지 들어준 내 꽃이기 때문이야. 나의 장미이기  
때문이야**”

어린 왕자는 여우에게 다시 갔어요

“잘 가 내 비밀은 이거야. 아주 간단해. **마음으로 보아야 잘 볼 수 있다는 거야.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.** 네 장미를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건 네가 그 장미를 위해 소비한 시간이야”

“사람들은 이 진실을 잊어버렸어. 하지만 넌 그걸 잊으면 안돼. **네가 길들인 것에 넌 언제나 책임이 있어.** 넌 네 장미한테 책임이 있어...”

“아저씨... 내 꽃 말인데요...나는 그 꽃에 책임이 있어요! 그 꽃은 정말 연약하거든요! 너무나 천진난만해요. 별 것도 아닌 네 개의 가시를 갖고서 세상으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려 하고 있어요...”

“사막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그것이 어딘가에 우물을  
숨겨 놓고 있기 때문이야”

